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 개인과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

Parental Physical Violence Toward Adolescents in Family*
- Focused on individu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한 경 혜
안성산업대 생활관리학과
조교수 김 영 희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 Prof. : Han, Gyoung Hae
Dept. of Home Management, Ansung National Univ.
Assit. Prof. : Kim, Young Hee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measure the prevalence of parental violence toward adolescents and to explore the predictors based on a data gathered from a sample of adolescents. A total of 1,451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and rural area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about 32% of the respondents are physically assaulted by their father and/or mother for the past year.

A logistic analysis shows that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arental violence when their parents have frequent marital conflicts and when parents use violence between themselves than the adolescent whose parents have no frequent spousal conflict and no domestic violen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age of adolescents and the changes i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parental violence.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parental violence was lowered as age increased. When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drop in school achievement,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parental violence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and prevent the family violence toward adolescents are discussed.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문제제기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폭력행동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1989년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창립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이후 의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한 영역으로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표집의 대표성이나 선택성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조사 결과가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서 그 원인 및 결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있었다. 비록 서구의 이론이기는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의 병리모델의 적용에서 나아가서, 학습이론, 스트레스 이론, 생태학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소개되었고,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그리고 지역사회까지를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도 지적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자녀폭력에 대한 논의나 연구에 있어 '청소년'은 비교적 간과되어온 연령집단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집중되어 왔으며, 청소년 폭력은 주로 학교폭력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가정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온 현재에도 청소년 자녀에 대한 가정내 폭력의 실태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학교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가정내 자녀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이나 기본 가정(assumption) 등이 제한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가정내 자녀폭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아동기 자녀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어온 원인으로는 우선 연구자들이 부모와의 관계적 용어인 '자녀 *child*'를 일정연령 단계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아동 *child*'과 동의어인양 접근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 이는 인간발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까지 아동기에 집중되어 왔으며, 생애발달적 관점이 가정폭력연구에 아직 접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겠다.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연령단계에 따라 자녀폭력의 성격이나 영향이 달라지고, 단위로서의 가족의 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성이 변화하게 되며, 청소년기 자녀 폭력은 아동기의 폭력과 매우 다른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생애발달적 관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이 아동기부터의 폭력의 연속현상인가, 아니면 청소년기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 가족역기능 현상인가 하는 측면에 따라 연구자가 던져야 하는 질문과 얻을 수 있는 대답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가정내의 세대간 폭력의 요인,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이론적 진보를 위해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이에 위치한 청소년기 자녀학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별개의 폭력현상으로 보아 넘기지만, 전생애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현상을 이어주는 중간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폭력 문제가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러하다.

가정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나 학문적 연구가 부족한 두 번째 이유는 신체적으로 작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영유아에 비하여 어느정도 성장한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의 폭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덜할 것이라는 인식을 일반대중이나 전문가 모두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특성상 가정폭력에 대한 반응이 학교나 기타 외부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어 심한 반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동기보다 더 크다.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할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청소년

1) 광의의 의미로 '아동'은 청소년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1989년 UN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 청소년과 구별하여 학동기 연령을 아동기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내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런 협의의 의미로 아동을 접근하여 조사해왔기 때문에 청소년기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내 폭력을 다룬 국내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의 피학대경험이 비행의 직접적 원인임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 졌다(Curtis, 1963; Lewis et al, 1989). 이들의 연구는 비교집단 없이 비행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회고적 방법을 썼다든지 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학대 경험과 청소년 비행이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기가 영유아기에 비하여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적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폭력 연구가 부족한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 폭력빈도는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지만 소위 '심한 폭력'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유아 학대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인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도 서구와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학대의 발생비율에 대한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실증조사가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내 폭력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가정폭력등 가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내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의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실증조사가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부모에 의한 청소년 자녀폭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특성 및 가족관계적인 제 변인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은 언어적 폭력이나 성적 학대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아동학대 연구는 이러한 광의의 폭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상이한 형태의 폭력은 그 관련요인이나 기제가 매우 다양하므로 한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신체적 폭력은 체벌, 경증 폭력 및 중증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의 실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행동에 관한 연구는 서구에서도 주로 영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청소년기의 자녀를 주된 관심으로 하는 연구조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에 관한 전국조사에서(Gelles & Straus, 1987; Straus & Gelles, 1986) 청소년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함께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의 범주에 드는 경미한 형태의 폭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발로 차고 물건으로 때리거나 흠씬 두들겨 패는 행동 등 자녀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한 폭력도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조사시점에서 과거 1년 동안 총이나 칼 등의 흉기로 자녀를 위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도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해당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후유증을 가져와서, 학업성취도가 낮고 이탈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폭력관련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Widom, 1989)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하여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가정 외부로 분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부모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출하여 아동상담소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행한 주 영희(1984)의 조사에 따르면 23.8%의 가출청소년이 '매맞기 싫어서' 가출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폭력에 의해 청소년 자녀가 치루어야 하는 비용은 비단 해당 청소년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사회적 개개 가정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내 청소년 폭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국내의 자녀폭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광일·고복자 1986; 고복자 1992; 신영화, 1986; 정혜영, 1987),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정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들은 또한 주로 가출아동 등의 요보호 아동, 소아과 전문의나 가정의에게 노출된 아동의 사례 및 부부간 폭력과 병행하여 나타난 사례 등을 다루었으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제한점 외에도, 심한 폭력에만 학문적 혹은 대중적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일반 가정에서 문화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연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게 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제한점을 낳는다. 이러한 제한점은 나아가서 그러한 폭력에 대하여 너그러운 사회적 관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표집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자녀 폭력 연구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문체 청소년이 아닌 일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허남순(1993)이 한 중소도시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상훈(1995)이 경기도 지역의 실업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 최근 김재엽(1998)이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 청소년 자녀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상훈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 고등학생의 74%가

뺨맞기, 약 11%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구타, 약 6%가 '흠뻑 얻어맞기'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훈 등은 이렇게 파악된 자녀폭력 빈도를 조사시점이 다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진 기존의 조사자료와 연령을 맞추어 비교하는 방법을 써서,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폭력경험에 있어서의 변화가 보이는가를 추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방법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중단적 연구나 잘 짜여진 패널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변화추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겠다. 그 결과 연령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폭력경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릴때부터 CRT상 N이상으로 심한 구타를 경험한 빈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방향인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적절한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폭력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고 청소년기에 들어도 감소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응답학생의 83.9%가 지난 1년간 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66%가 회초리 등을 이용한 체벌을 당하였으며, 42%가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를 당하였고, 8.6%는 어머니가 몽둥이 등을 이용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자녀 훈육에 있어 느끼게 되는 체격이나 물리적 힘에서의 열세를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나타난 결과인 듯 하다. 한편, 심한 폭력의 경우 구타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어머니인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머니의 물리적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허남순의 조사에서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전체 대상자 중 81.5%가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폭행의 차이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상의 두 연구 결과는 일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

석에 초점을 기한다.

이 상훈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최근 김재엽(1998)은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폭력경험을 조사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폭력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면서, 13-18세를 한 범주로 하여 6세 이하 유아, 7-12세 아동집단을 비교하였다. 신체적 처벌은 청소년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언어 폭력으로 형태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자녀를 손, 발을 이용하여 구타하거나 몽둥이나 허리띠로 때리는 등의 '심한' 폭력의 경우에는 연령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청소년기에도 감소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폭력 사용빈도가 높고, 심한 폭력 사용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훈육의 실제적 담당자이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체벌/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기회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구의 연구들도 누가 실제 자녀와 동거하는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가/ 함께 보내는 시간등을 통제하면 아버지의 폭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reighton & Noyes, 1989).

2.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관련 요인

앞에서 지적한대로 청소년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체계적인 국내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변수에 관한 고찰을 주로 서구의 연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구의 연구들도 가정내 청소년 자녀 폭력에 관한 일관성있는 연구결과와 정보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 발달의 생태학적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서구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청소년과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가정내 자녀폭력은 개인 특성요인, 가족의 구조적 내지는 관계적 특성요인,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폭력과 연관성이 가장 자주 논의되는 개인적 특성요인으로는 자녀의 성과, 연령,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일탈행동 등의 행동특성변수이다.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이 감소하지만(Straus & Gelles, 1986), 중증폭력과 연령과의 관련성은 체계적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한 결과들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딸이 아들보다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는가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다(Herzberger, 1996). 그런가하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서는 남자아이들이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자아이의 폭력경험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Olsen & Holmes, 1986). 가정내 폭력과 관련되는 자녀의 행동특성으로 한국의 경우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특성상 자녀의 학업성적이 부모의 자녀폭력에 선행요인이 될 수 있겠다. 김재엽(1998)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청소년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한 주된 이유로 자녀의 학업성적을 들었는데, 이는 학력 중시, 경쟁위주의 우리사회에서 폭력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것이다. 서구의 경우 자녀의 개인특성으로 학업성취도나 일탈행동 등이 연구되었으나 이들 변수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 이들 행동특성을 폭력의 결과로 보고 접근한 연구가 더 많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부모자신의 아동기 때의 폭력 경험여부와 음주나 약물복용 등의 문제행동 등이 대표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araga, 1993; Soong, 1997; Widom, 1989).

가족 특성으로는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와 같은 관계적 특성과 편부모 가족인가 하는 구조적 특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부부간 폭력 유무는 가족내 하위체계 간의 폭력의 연관성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자녀폭력과 관련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부부간 갈등이 많거나 부부간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oong, 1997).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자녀들까지 구타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여성개발원(199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부폭력의 약 30%는 자녀들을 함께 폭행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편부모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자녀폭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Gelles, 1989; Gelles, 1992) 이는 편부모가족이라는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들 가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박탈이 심하다는 점이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Gelles, 1992).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또한 거시적 사회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폭력과 계층, 빈곤문제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특성이다. 가정폭력이 특별히 빈곤층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족이 가정폭력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가정에서 자녀폭력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Dallos & Loughlin, 1993). 그리하여 '신체적 폭력은 빈곤의 범죄이다'라고 까지 일컬어지기도 한다.

관련변수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앞에서 누차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개인 및 가족특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한국교육연감 1997년판'의 별책으로 발행한 '한국교육명부'에 수록된 전국 중,고등학교의 명칭과 주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대도시 지역의 자료는 서울에서 수집하기로 하여 강남지역에서 2개 중학교와 2개 일반고교, 강북지역에서 역시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를 비확률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 폭력경험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 2개교를 편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서 군단위를 선정한 후 각 군에서 1개 중학교씩 선정하여 총 4개 중학교, 그리고 같은 과정을 거쳐 군당 1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역시 총 4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각 1학교씩 2개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과 농촌을 합하여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2개교의 총 20개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1998년 9월 2일-10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각 학년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협조공문을 각 학교장 앞으로 발송한 후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학급 선정방법, 조사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와 조사지, 반송봉투를 각 학교에 발송하였다. 민감한 주제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학교, 지역에 대한 익명성을 여러 단계에 걸쳐 강조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총 1820부를 발송하여 1451부가 회수되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폭력발생실태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가정폭력 조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척도인 Straus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를 한국사회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에 의한 청소년 자녀 폭력, 어머니에 의한 청소년 자녀폭력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체벌 경험에 관한 1문항, 가벼운 폭력 2 문항, 그리고 심한 폭력에 관한 1문항으로 나누어 총 4문항을 측정하였다. 회초리나

자를 이용하여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동을 체벌로 분류하였고, 발로 차거나 손으로 몸을 때리는 행동이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동을 경증 폭력, 그리고 몽둥이, 혁대 등의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을 중증 폭력행동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폭력을 지난 1년간 경험하였는지 여부와 정도를 질문하였다.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응답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전체 1451명 중 51.4%가 서울 지역, 그리고 48.6%가 농촌지역의 학생으로 중학생이 51.7%, 고등학생이 48.3%에 달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으며,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의 자녀가 11.8%에 이른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인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부모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이 약 27%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체표집에서 농촌지역 학생의 비율이 약 49%를 차지하기 때문이겠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약 21%이며, 약 19%의 아버지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약 80%의 응답학생이 1-2명의 형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의 실태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가 조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 청소년의 21.3%가 아버지로부터 체벌이나 가벼운 폭력 내지는 심한 폭력 중 한가지 폭력을 적어도 1회 이상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로부터의 폭력은 그보다 약간 빈도가 낮아서 19.8%가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행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초리나 자로 때리는 체벌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행사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51)*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지역	서울	746	51.4
	농촌	705	48.6
연령	중학생	750	51.7
	고등학생	700	48.3
고등학교 형태	일반고	356	50.9
	실업고	344	49.1
父 학력	국졸	199	14.1
	중졸	279	19.8
	고졸	643	45.7
	전문대졸	36	2.6
	대졸	249	17.7
母 학력	국졸	274	19.5
	중졸	383	27.2
	고졸	603	42.9
	전문대졸	18	1.3
	대졸	127	9.0
성	남학생	665	45.9
	여학생	785	54.1
父 직업	전문관리직	195	11.5
	사무직	165	12.3
	생산직	281	20.9
	자영업	250	18.6
	영업서비스직	91	6.8
	단순노무	25	1.9
	농업	375	27.9
	없음	99	6.8
형제, 자매수	1명	778	53.7
	2명	373	25.7
	3명이상	198	13.6
	없음	102	7.0
가족구조	편부모	128	11.8
	부부가족	1323	88.2

*무응답에 따라 변수마다 사례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

나타났으나,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는 폭력의 행사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69명의 청소년이 몽둥이나 혁대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아버지에게 얻어맞았으며, 40명은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심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9%에 달하는 131명의 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

〈표 2〉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발생 정도

(N=1451)

폭력 행동	부	모	부모 둘다
	빈도(%)	빈도(%)	빈도(%)
신체적 폭력*	309(21.3)	287(19.8)	131(9.0)
체 별			
회초리나 자로 때림	203(14.1)	252(17.3)	83(5.7)
경증 폭력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림	159(9.8)	110(7.7)	43(3.0)
물건을 던지거나 부숨	70(4.8)	25(1.8)	6(0.4)
중증 폭력			
몽둥이, 혁대 등으로 때림	69(4.8)	40(2.8)	12(0.8)

* : 체벌, 경증 폭력, 중증 폭력중 어느 한가지라도 있는 경우임.

타났다. 상대적 빈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교육적 체벌이나 적절한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형태, 즉 부모가 모두 차고, 던지고,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폭력 행동을 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폭력발생 정도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김재엽(1998)의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김재엽의 조사에 의하면 40.9%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체벌을 한 경험이 있으며, 34.1%가 경미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65.6%가 체벌, 41.9%가 경미한 학대, 그리고 8.6%가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조사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의 폭력빈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조사와 김재엽의 조사가 연구 방법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듯 하다. 우선 김재엽의 조사는 아버지 44명, 어머니 9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 비하여 표집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녀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들에 대한 폭력행동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누계하여 높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본 조사는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회상의 정확성 문제는 덜하나, 학교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 때문에 전화조사보다 보고를 적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방법에서의

이러한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재엽의 조사는 과다보고(overcount)되고 본 조사는 과소보고(undercount)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두 연구의 폭력빈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두 조사가 각각 성인남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국규모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자료가 현실에 보다 근접하는 정확한 자료인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과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조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언제부터 신체적 폭력을 행하였는지 그 시작 시기를 질문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약 10%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부모가 회초리나 주먹을 이용하여 구타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32.4%는 초등학교 저학년기에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응답하여서, 비교적 어린 나이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중학교에 들어온 이후 폭력이 시작된 경우도 약 25%로 상당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부모의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는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에 대하여 적절한 대화나 통제기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추론 가능하다. 자녀의 사춘기적 특성이나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초등학교까지 말을 잘 듣던 자녀가 문제를 일

〈표 3〉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폭력 행동 시작 시기

시작시기	빈도	비율(%)
유아기(1-6세)	46	9.9
초등학교 저학년기(7-9세)	150	32.4
초등학교 고학년기(10-12세)	152	33.1
중학생 이후(13세 이후)	114	24.6
합계	462	100.0

〈표 4〉 폭력 행동을 당한 후의 심정

시작시기	빈도	비율(%)
뉘우치고 반성함	197	33.6
때리는 부모님을 이해함	134	22.9
가출하고 싶거나 실제로 가출함	162	27.6
나중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심정	93	15.9
합계	586	100.0

으키는 것으로 부모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폭력을 이용하지 않던 부모가 중학생이 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종종 훈육,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고 따라서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보다 사회가 허용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들이 체벌 등 부모의 폭력에 대하여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폭력을 통하여 청소년자녀를 교육 내지는 통제하려는 부모의 의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잘못된 것인지 하는 점이 명확해진다.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가출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가출을 한 비율이 27.6%,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는 청소년이 15.9%에 달한다. 부모의 폭력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극단적 형태를 띠는 것으로, 이러한 정서상태의 자녀에게 부모와의 대화나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오히려 신체적 폭력이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악화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폭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억압되어 있다가 다른 대상에게 공격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엽, 1998).

그런가하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청소년이 33.6%이고, 때리는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청소년도 22.9%에 달하는 것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응답자가 반수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Herzberger, 1996; Saraga, 1993)은 부모를 이해한다는 반응 역시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2. 청소년 자녀폭력에 영향 미치는 요인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 가벼운 또는 심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로, 부모 모두에 의한 폭력이 없는 경우(=0)는 전체의 68.2%이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폭력당하는 경우(=1)는 전체의 31.8%에 해당된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개인특성으로 자녀의 성과 연령, 그리고 부모의 특성으로 음주행동을 포함하였다. 가족특성으로 가족구조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어려움 경험여부를 선정하였고, 가족관계적 특성으로 부모의 불화와 부모들이 서로 폭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포함시켰다. 자녀의 행동특성으로 지난 1년간 성적저하 여부를 포함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로지스틱 모델의 통계치로 로지스틱 계수 및 계수의 지수값을 제시하였다. 계수의 지수값(odds ratio)이 1보다 큰 것은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1보다 작은 것은 폭력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 의하면, 부모의 불화, 부모의 폭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적저하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불화가 잦을수록, 부모간 폭력정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표 5> 로지스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변 인	정 의	평 균	표준편차
가족구조	부부가족=0/편부가족=1		
부모의 교육수준	국졸=1, 중졸=2, 고졸=3, 전문대졸=4, 대졸=5	2.53	1.10
경제적 어려움	곤란없는 경우=0/곤란이 있는 경우=1		
부모의 불화	불화가 자주 없는 경우=0/자주있는 경우=1		
독립변수 부모의 음주	과음하지 않는 경우=0/과음하는 경우=1		
부모간 폭력	전혀 아니다=1, 거의아니다=2, 가끔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항상그렇다=5	1.61	0.87
자녀의 성	여성=0/남성=1		
자녀의 연령	응답자의 나이	15.42	1.67
자녀의 성적저하	성적의 변화없음=0/저하됨=1		
종속변수 청소년 자녀폭력	폭력없는 경우=0/부 또는 모가 폭력하는 경우=1		

<표 6> 부모의 청소년자녀 폭력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독립 변수	계 수	계수의 지수값 (odds ratio)
가족구조	.09	1.10
부모의 교육수준	.00	1.00
경제적 어려움	.01	1.01
부모의 불화	.59**	1.81
부모의 음주	.24	1.27
부모간 폭력	.39**	1.49
자녀의 성	-.11	.89
자녀의 연령	-.17**	.84
자녀의 성적저하	.27*	1.31
상 수	-1.46	
모 델 χ^2	84.08**	
df	9	

*: $p < 0.1$, **: $p < .001$

록, 청소년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 지난 1년간 학업성적의 저하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확률은 부모의 불화가 자주 있는 경우 불화가 없는 경우보다 1.81배 높아서, 폭력가능성이 81% 증가한다. 또 부모간 폭력정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1.49배 높아져 폭력

가능성이 49%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한 살 많아질수록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16%씩 감소한다. 청소년에게 폭력을 사용할 확률은 자녀의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1.31배로서 31% 높아진다. 이상의 독립 변수 중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모의 불화 및 부모간 폭력정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불화가 부부간 폭력으로 이어지고, 부부간 폭력이 자녀폭력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V. 결론 및 논의

최근 우리 사회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는 가족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족불안정성이나 가족폭력 등 가족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수립을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청소년 자녀 폭력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전국의 20개 중 고등학교에서 표집한 145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

다.

선행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청소년기에도 부모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며, 폭력을 가져오는 요인 및 폭력의 영향, 반응이 아동기 폭력과 상이하다는 점이다. 본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서구의 연구결과들을 대체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465명(32.0%)이 지난 1년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적어도 1회 이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체벌과 경증 폭력이 가장 많았으나, 자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훈육적 체벌의 범주를 벗어나는 중증폭력도 상당정도 관찰되었다. 학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실제 빈도는 본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관하여 상당히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보는 가부장적 의식이 뿌리깊으며, 교육을 위해서는 약간의 폭력은 필요하거나 효과적이라는 태도가 널리 퍼져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Gill (1970) 등이 주장하듯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아무리 경미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일단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면 더 심한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확산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한 체벌에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신체적 폭력이 유익하거나 허용할 만하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폭력이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자료분석 결과, 부모들의 폭력에 대하여 가출충동이나 극심한 반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상당 정도 있어서 폭력의 심리적 영향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폭력이 시작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1/3이 초등학교 저학년기 부터, 그리고 또 다른 1/3이 초등학교 고학년기부터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들이 자녀훈육의 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의미의 폭력이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벼운 형태의 폭력이라도 장기간 경험하게 되면 폭력에 대한 학습과 습관화를 가져오며 더 심한 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매우 우려되는 가정폭력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특히 실직이나 경제적 형편의 악화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익숙해 온 폭력에 쉽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정내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1/4은 중학생이 된 후에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변화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새로이 시작되는 폭력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부모에 의한 청소년 자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불화 및 그들간의 폭력, 그리고 청소년의 성적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부간 폭력유무는 가족내 하위체계간의 폭력의 연관성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자녀폭력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과 부부간 폭력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폭력의 영역간 전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편부모 가족구조나 경제적 지위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폭력발생의 근저에 있기 때문인지를 밝히는 추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학업성적의 저하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재엽 (1998)이나 Soong(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학력중시 한국사회에서 폭력이 자녀를 위한 체벌로 명분화되는 예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서구의 연구들에 의하면(Newberger & De Vos, 1988; Williamson et al, 1991)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의 특성상, 폭력의 발생에 있어 원인제공 요인으로서 자녀들의 행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동기 보다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성적불량은 부모의 신체적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있어 폭력은 어린 자녀와는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 논문의 앞 부분에서 지적한 바 있다. 발달하는 자녀를 이해하고 그 단계에 적절한 훈육, 교육기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에게는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과 대화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드시 심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왜 자녀에 대한 폭력이 자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하겠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대리만족 도구도 아니라는 점을 부모들이 인식할 때, 훈육을 핑계로 하는 폭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대화나 갈등해결의 기술, 폭력의 역기능성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 폭력의 악순환에 첫발을 들여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개별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국가적 차원에서 나누어 부담해주는 지원정책의 활성화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실증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그런 면에서 탐색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자녀 폭력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선행요인들이 사회 문화적 특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크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 처벌에 대하여 특히 허용적이며, 가부장적 가족

규범이 아직도 뿌리 깊어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연구와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조사의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폭력이 가지는 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의 내용을 선정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후속연구 또한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부간 불화, 빈곤,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들이 청소년 자녀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방향에 있어 아동기와 차이가 있을 것이고(김기환, 1995), 폭력에 대한 반응과 영향도 아동기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행사자보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보고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에 근거하여(Arias & Beach, 198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소년 자녀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연구뿐 아니라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심층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광일·고복자(1987). 아동구타와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2) 김기환(1995). 결손가정에서의 청소년학대 및 방임실태. 14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3) 김재엽(1998).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19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4) 이상훈·김재환(1995). 고등학교 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조사. 신경정신의학, 34(4), 1093-1103.
- 5)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 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6)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1, 23-44.
- 7) Arias, I. & Beach, S. R. H.(1987). Validity of self

- report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 139-149.
- 8) Bittman, M., & Pixley, J.(1997). *The double life of the family*. Allen & Unwin.
 - 9) Cantrel, P. J., MacIntyre, D.I., Sharkey, K. J., & Thompson, V.(1995). Violence in the marital dyad as a predictor of violence in the peer relationships of older adolescents/young adults. *Violence and Victims*, 10, 35-41.
 - 10) Creighton, S. J. & Noyes, P.(1989). Child abuse trends in England and Wales 1983-1987, London, NSPCC.
 - 11) Curtis(1963). Violence breeds violence, 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386-387.
 - 12) Foreman, S. & Dallos, R.(1993). Domestic violence. In, R. Dallos & E. Loughlin(Eds.) *Social problems and the Family*. Thousand Oaks : Sage.
 - 13) Gelles, R.J.(1980).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873-885.
 - 14) Gelles, R. J. (1992). Poverty and violence toward childre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3), 258-274.
 - 15) Gelles, R.J.(1994). Family violence, abuse, and neglect. In, P.C. McKenry & S.J. Price(Eds.) *Families and Change*. Thousand Oaks: Sage.
 - 16) Gil, D. G.(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Physical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7) Harbin, H. T., & Madden, D.J.(1979). Battered parents: A new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288-1291.
 - 18) Herzberger, S. D.(1996). *Violence within the family: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Boulder: Westview Press.
 - 19) Hotaling, G. T., & Strauss, M.A.(1989). Intrafamily violence, and crime and violence outside the family. In L.Ohlin & M.Tonry(Eds.) *Family viol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 Kratooski, P. C.(1984) Perspectives on intrafamily violence. *Human Relations*, 37(6), 443-454.
 - 21) Newberger & De Vos(1988). Abuse and victimization: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4), 505-511.
 - 22) Pagelow, M. D.(1989).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riminal abuse of other family members. In, L. Ohlin & M.Tonry(Eds.) *Family viol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3) Saraga, E.(1993). The abuse of children. In, R. Dallos & E. Loughlin(Eds.) *Social problems and the Family*. Thousand Oaks : Sage.
 - 24) Soong, W. T.(1997).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n Taiwan. '동아시아권의 가정내 청소년 폭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주최 청소년 폭력 관련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 25) Strauss, M. A.(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88.
 - 26) Strauss, M. A., Gelles, R. J., & Steinmetz, S.K.(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Anchor/Doubleday.
 - 27) Strauss, M. & Gelles, R.(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465-479.
 - 28) Widom, C. S.(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 160-166.
 - 29) Williamson, Borduin & Howe (1991). The ecology of adolescent maltreatment: A multilevel examination of adolescent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3), 449-457.